

2과 Christian Basics “예배: 예배하는 삶을 살라”

[본문 : 창세기 12장 7-9절]

배워보기

제단을 쌓은 곳에서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창12:7~8). 즉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새로운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비옥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두려워 누이동생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시작한 삶이 고난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삶의 길을 찾는 것이 더 긴박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서지 못한 아브람은 애굽에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인간적인 수단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배자의 삶에서 벗어나 수치를 당한 아브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람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13:4)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가 되고 나서의 행동입니다. 자신의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13:8~9)

예배자가 된 아브람의 선택과 삶이 달라집니다. 제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브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지만(창13:10),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선택했습니다(창13:14~17). 아브람은 눈에 보이는 땅을 축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땅, 가능성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드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창13:18)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자는 계속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요, 그 약속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다!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예배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에게는 예배자로서의 훈적

이 있어야 합니다.

낙타는 무릎을 끓고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에는 굳은살이 박혀 있습니다. 예배자에게는 낙타와 같은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 무릎을 끓었던 흔적과 같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까?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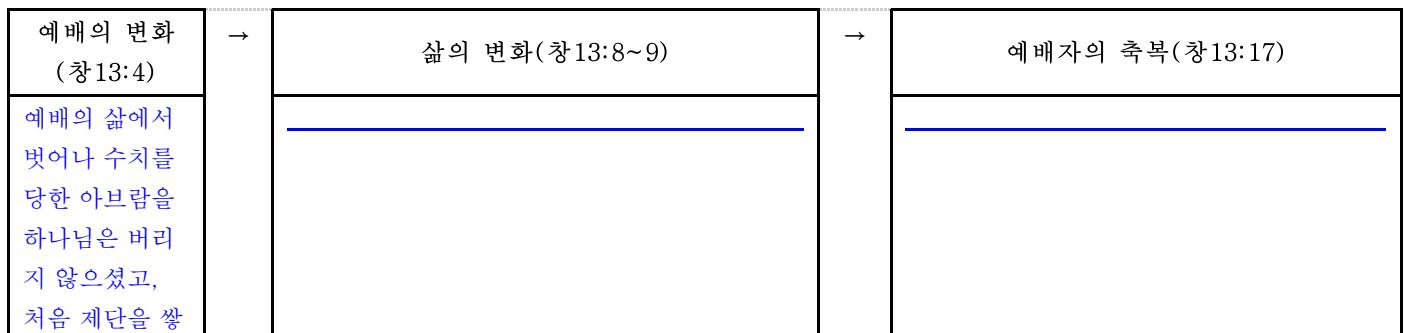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드리는 예배 속에 그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능력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연구

1. 예배를 잃어버린 아브람이 어떻게 예배자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까?(창13:4)

2.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아브람(창13:4)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창13:8~9) 이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창13:17)



은 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
을 불렀다.

결단과 기도

▣ 적용 및 결단질문

나는 예배를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흔적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흔적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한 가지 결단하여 적어봅시다.

▣ 기도제목